7th Resident Artists of

Incheon Art Platform 2016

2016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7기 입주 작가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해안동 일대에 조성된 복합문화예술 매개공간입니다. 근대 개항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립된 인천아트플랫폼은 상이한 예술 활동 간의 적극적인 대화를 이끌어내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장소로서 문화예술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편리한 창작과 연구 및 거주 공간을 지원하고 작가들의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각예술, 공연예술 뿐만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비평가, 큐레이터 등의 연구 활동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예술 창작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의 창작, 유통, 향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매개공간으로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국제 문화예술 교류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Incheon Art Platform is a cultural and artistic complex built in Haean-dong Jung-gu, Incheon as part of a project named Revitalization Project of Old City Center in Incheon.
Buildings constructed during the period of port-opening were renovated into Incheon Art Platform whose purpose is to bring out active conversation between various artistic activities to create synergy effect an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s.
Incheon Art Platform runs residency program that promotes artists and supports to provide artists with comfortable and stable space of living, creation and research for a certain period. Incheon Art Platform supports creation work of artists with various backgrounds such as visual art, performing arts and research work of critics and curators to play the role of an incubator of new art.
As a space that intermediates cultural arts, Incheon Art Platform that embraces all the process of artistic creation such as creation, distribution, and appreciation will support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al art and vitalize the area.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7기 입주 작가

7th Resident Artists of Incheon Art Platform 2016

아티스트 Artists

강제윤
KANG Jeyoon

고등어
Mackerel SAFRANSKI

그레이스 은아 김
Grace Euna KIM

그레이코드, 지인
GRAYCODE, jiiiin

김성배
KIM Sungbae

김성용
KIM Sungyong

김순임
KIM Soonim

김유정
KIM Yujung

김춘재
KIM Choons

김푸르나
KIM Pureuna

김홍기
KIM Hongki

나여랑
NA Yeorang

더 바이트 백 무브먼트
The Bite Back Movement

덕스 씨어터
Dirks Theatre

멜팅다츠
Melting Dots

박준상
PARK Joonsang

배인숙
BAE Insook

보이치에흐 길비츠
Wojciech GILEWICZ

서영주
SEO Youngjoo

서해영
SEO Haeyoung

손승범
SON Seungbeom

신민
SHIN Min

안명호공미선
AN-KONG

앤드씨어터
A.N.D. theatre

양유연
YANG Yooyun

에릭 스캇 넬슨
Eric Scott NELSON

월요일 사람들
Monday Humans

위영일
WEE Youngil

윤대희
YOON Daehee

이민우
LEE Minwoo

조원득
JO Wondeuk

쥴리 인선 윤
Julie Insun YOUN

채은영
CHAE Eunyoung

최선
CHOI 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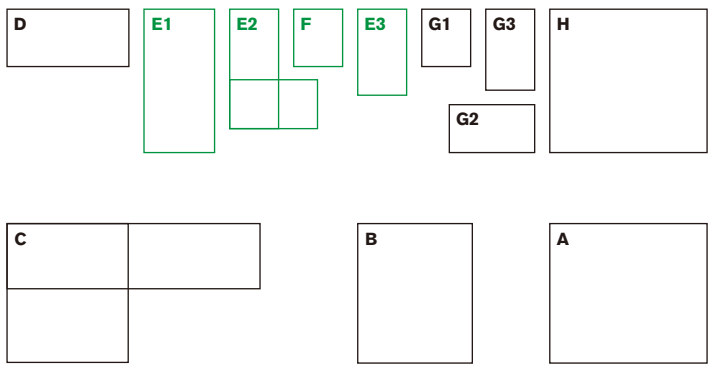
최현석
CHOI Hyunseok

2016 Artists-in-Residency

2016	3	4	5	6	7	8	9	10	11	12	1	2
E1	김유정 KIM Yujung											
E2	손승범 SON Seungbeom											
E3	윤대희 YOON Daehee											
E4	김성용 KIM Sungyong			배인숙 BAE Insook			서영주 SEO Youngjoo					
E5	김성배 KIM Sungbae											
E6	최선 CHOI Sun											
E7	위영일 WEE Youngil											
E8	고등어 Mackerel SAFRANSKI											
E9	김춘재 KIM Choons											
E10	김순임 KIM Soonim											
E11	신민 SHIN Min											
E12	최현석 CHOI Hyunseok											
E13	서해영 SEO Haeyoung											

2016	3	4	5	6	7	8	9	10	11	12	1	2
E14	더 바이트 백 무브먼트 The Bite Back Movement						그레이스 은아 김 Grace Euna KIM					
E15	미디어랩 Media lab											
E16	양유연 YANG Yooyun											
E17	김푸르나 KIM Pureuna											
E18	에릭 스캇 넬슨 Eric Scott NELSON			월요일 사람들 Monday Humans			덕스 씨어터 Dirks Theatre					
E19	쥴리 인선 윤 Julie Insun YOUN			이민우 LEE Minwoo			보이치에흐 길비츠 Wojciech GILEWICZ					
E20	조원득 JO Wondeuk											
E21	그레이코드, 지인 GRAYCODE, jiiiiin			멜팅다츠 Melting Dots			안명호공미선 AN-KONG					
E22	앤드씨어터 A.N.D. theatre											
F1	박준상 PARK Joonsang											
F2	김홍기 KIM Hongki											
F4	채은영 CHAE Eunyoung											
F5	나여랑 NA Yeorang											
F7	강제윤 KANG Jeyoon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



스튜디오 안내
Studio Information

	E1	E2	E3
1F	01 02 03 21 22 공동작업실	04 05 06	작가휴게실
2F		07 08 09 Guest House 4 Guest House 6	13 14 15 16
3F		10 11 12 Guest House 7	17 18 19 20

차례 Contents

시각예술
Visual Art

고등어 8
Mackerel SAFRANSKI

그레이스 은아 김 9
Grace Euna KIM

김순임 10
KIM Soonim

김유정 11
KIM Yujung

김춘재 12
KIM Choons

김푸르나 13
KIM Pureuna

더 바이트 백 무브먼트 14
The Bite Back Movement

보이치에흐 길비츠 15
Wojciech GILEWICZ

서해영 16
SEO Haeyoung

손승범 17
SON Seungbeom

신민 18
SHIN Min

양유연 19
YANG Yooyun

위영일 20
WEE Youngil

윤대희 21
YOON Daehee

이민우 22
LEE Minwoo

조원득 23
JO Wondeuk

쥴리 인선 윤 24
Julie Insun YOUN

최선 25
CHOI Sun

최현석 26
CHOI Hyunseok

공연예술
Performing Art

27
그레이코드, 지인
GRAYCODE, jiiiiin

28
김성배
KIM Sungbae

29
김성용
KIM Sungyong

30
덕스 씨어터
Dirks Theatre

31
멜팅다츠
Melting Dots

32
배인숙
BAE Insook

33
서영주
SEO Youngjoo

34
안명호공미선
AN-KONG

35
앤드씨어터
A.N.D. theatre

36
에릭 스캇 넬슨
Eric Scott NELSON

37
월요일 사람들
Monday Humans

연구, 평론
Research, Criticism

강제윤 38
KANG Jeyoon

김홍기 39
KIM Hongki

나여랑 40
NA Yeorang

박준상 41
PARK Joonsang

채은영 42
CHAE Eunyoung

고등어 Mackerel SAFRANSKI

Oh~ my love, love, love, Fucking my love, love, love

충이에 혼합재료
color pencil, acrylic, mixed media on paper
172×112.5㎝
2015

1984년 출생, 서울 거주.
고등어는 7년 전 히스테리의 징후로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폭식과 거식의 식이장애를 겪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그림을 시작했다. 초기작들 대부분은 작가가 느낀 불안들을 회화로 형상화하는 작업이었다. 작업의 시작이 신체적 징후이기에 진정한 자신의 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시각적인, 물질적인 탐구를 해나가고 있다. '자신을 스스로 겪고 있는 신체'와 그 신체가 짊어진 불안에 대해 '노동'과 '섹스'라는 인간의 두 가지 행위가 작업의 주요 대상이 된다. 또한, 지극히 사적인 신체의 행위인 섹스를 통해, 분출된 정념의 순간과 육화된 의식으로 불안을 넘어서려는 신체에 관한 이야기이다. 올해는 특히 '섹스'와 타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작업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평화시장 근처나 인천아트플랫폼, 낙원여인숙 근처를 둘러보았을 때 인천에는 역사와 함께한 오래된 건물이 많았다. 역사적인 사정이나 지역적인 사정에 의해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건물들이 있었고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기에 공간으로서 生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건물들 또한 있었다. 타자와 나와의 애정(愛情)관계 이후 '남겨진 신체'에 대한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 건물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는 변해버린 '의미'를 간신히 살아내고 있는 건물들의 내밀한 속살에 관한 영상작업과 설치 드로잉 작업을 해나가고 싶다."

Born in 1984, lives in Seoul.
Mackerel SAFRANSKI went through bulimia nervosa and anorexia nervosa (binge-eating disorder) seven years ago when she got stressed and felt uneasy as a result of hysterical symptoms, and began to make a drawing to cure these disorders. Most of the early works were about embodying the artist's anxieties into the paintings. Because she starts her works from physical symptoms, she continues to proceed the visual, material research as a process of searching the artist's own real body. The artist's main object for work is 'a body which went through by itself' and the human being's two behaviors responding to the human being's anxiety, that is, 'labour' and 'sex'. In addition, the artist's works are the stories about the bodies which want to resolve the anxiety by using the moments when the emotions are expressed and the materialized conscience through sex which is the most private physical behavior. This year, she is going to focus especial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and the other. "When we looked around Incheon, such as the Incheon Peace Market, Art Platform and Nakwon(paradise) Inn, and so on, we found the old buildings that went along with Korean history. Among the buildings, on the one hand, there were some buildings which were neglected and left out due to the historic or local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also the others which created and maintained the life as a space because people still lived there. I continue to proceed the works about 'the bodies remained' after the love affair between me and the other is broken up and from now on, I want to deal with the stories about people who live there and make the visual and installation works about the secretive inner side of the buildings which manage to endure the 'meaning' which is now changed."

그레이스 은아 김 Grace Euna KIM

Action in the Underground

퍼포먼스 영상
still document, performance intervention
3'30"
2014

1976년 출생, 독일 베를린 거주.
그레이스 은아 김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연구, 퍼포먼스, 사회적 개입, 사진과 영상작업을 진행하는 아티스트이다. 현재 스위스 European Graduate School에서 철학, 예술, 비판적 사고 전공 박사과정 재학 중이며 베를린과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다. 그레이스 은아 김의 작업은 장난스러운 실험을 통해 친밀함과 고립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탐구하며, 이는 동시대 사회가 처한 상황을 반영한다. 작품은 퍼포머가 첫 번째 정거장, 거의 텅 빈 지하철 차량 근처에 이르며 시작된다. 여성 퍼포머는 홀로 앉은 승객 옆에 아주 가까이 앉아 공적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한계를 시험한다. 그 다음 정거장에선 또 다른 퍼포머가 도착하고 비슷한 행위를 되풀이한다. 그리고 지하철 U1 노선의 열 두개 정류장을 오가며 세 시간 반 동안 퍼포먼스가 이루어진다. 입주 기간에는 한국의 입양아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며, 이들이 줄곧 겪게 되는 어려운 점들과 사회적 금기에 관해 공적인 대화를 이끌고자한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의 보육원에 있는 어린이들과 사진 워크숍 및 전시를 하는 것, 인천도심의 공공장소에 예술적으로 개입하는 것, 가정과 놀이를 반관습적(anti-conventional)으로 탐구하는 세 가지의 혼합매체작업으로 이루어진다.

www.grace-kim.com

Born in 1976, lives in Berlin, Germany .
Grace Euna Kim is a Korean American artist and researcher, working in performance, social intervention, photography, and video. She is currently a PhD candidate in Philosophy, Art and Critical Thought at the European Graduate School in Switzerland, and is based between Berlin and New York. Her work is a playful experiment exploring the tension between intimacy and isolation, mirrored in our contemporary condition. The work began at the first station as one performer arrived in the nearly empty car. She sat very close beside a lone passenger, testing limits of public, private space. At the next stop another performer arrived, repeating a similar action, and so on. 12 stops, performers, back and forth on the U1 line, for 3.5 hours.
The work seeks to give a voice to the situation of the orphans in S. Korea, and invite a public dialogue around the challenges and social taboos that perpetuate their plight. The project will have 3 parts: A photography workshop and exhibition for the children of an Incheon orphanage; A public intervention and social experiment in the city center; A mixed media work exploring anti-conventional constructs of home and play.

김순임

KIM Soonim

그 사람 19-다니엘 2012
The People19-Daniel 2012
혼합재료, 가변설치
dimensions variable
wool felt, wire, feathers, skateboard and sneakers
2012

1975년 출생, 인천 거주.
김순임은 삶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 지역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자연재료를 가지고 설치, 조각, 평면 등으로 표현하는 비쥬얼 아티스트이다. 소백산이라는 자연환경에서 나고, 성장하면서 산과 들에서 놀이 대상을 찾았던 작가의 어린 시절과 무관하지 않다. 작품은 자연물들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영구적이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소멸되며 이는 인간의 생사와 닮고자 함이다. 이 때문에 작업의 결과물인 설치작업 외에 그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드로잉, 퍼포먼스,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작업방식으로 결과물을 남긴다. 작가는 타자와의 '만남', 그 만남에 의해 생성되는 '기억'이 각 대상을 얼마나 특별하게 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거주와 이주'를 계속해 나간다.
"아무리 거대한 작업도 한 땀의 바느질에서 시작되고 작업과 함께한 시간과 그곳에서의 제 마음이 작업에 담기며, 그것이 관객을 만나는 작업의 얼굴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제 삶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www.kimsoonim.com

Born in 1975, lives in Incheon.
KIM Soonim is a visual artist who interprets subjectively the people and places which she encounters in her life and expresses them into an installation, sculpture and plane by using natural materials. This has something to do with her childhood when she was born and grown in the natural environment like Mt. Sobaek and looked for a something to play in the mountains and fields. Because her works are made from natural materials, they are not permanent but disappear and dissipate naturally, and that is because she wants to make her works similar to the human life and death. On this account, in addition to the installation works which were the results of such a process, for the purpose of recording the process, she makes such results in a various forms, such as drawing, performance, image and photographs. The artist focuses on the 'encounter' with the other and how the 'memory' being generated by the encounter can make each object special, and continues to repeat 'settlement and move'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her curiosity.
"No matter how mammoth the work is, it begins in sewing of a stitch. And I believe that the work includes the time consumed with the working process and my mind in it, and it is the face of the work meeting with audience. I will do my best to be constantly there."

김유정

KIM Yujung

온기
Warmth
프레스코화
fresco painting
90×140cm
2015

1974년 출생, 인천 거주.
김유정은 단국대 서양화과, 고려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단국대 서양화 박사를 졸업했고 국내(관훈갤러리, 선광미술관) 및 중국에서 개인전을 진행했으며 2015년부터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해 있다. 작가는 프레스코화 작업으로 전통과 동시대 미술을 연계한 길항 관계를 모색하고, 전통적인 것을 현대적으로 수용한 작업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검은 화면 안 식물, 정원은 프레스코 기법을 통해 흑석을 도포한 후 석회(회벽)가 마르기 전에 화면에 스크래치를 내는 방식으로 이러한 지난한 과정이 쌓여 화면에 흠집을 내어 형상을 찾아가는 행위로서의 풍경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의 축척에 맞도록 재단한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인공화된 자연 또는 도시화된 자연은 인간중심의 관점으로 생성된 인간의 욕망, 문명의 이기심, 도시주의 안에서의 자연관 등 다각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프레스코 기법을 이용한 캔버스 회화라는 모순, 자연과 인위적인 상품 사이에 있는 화분, 대지에서 자라는 식물이 아닌 콘크리트 벽면 사이에서 자생하는 식물, 그리고 생명의 기원에서 이주한 식물원의 장면 등은 이중적 위치에서 삶을 유지하는 생명체에 관한 작가의 시선을 대변한다. 입주해 있는 동안 김유정은 다양한 인문학적 사고를 지닌 주체들과 협업하여 인문학적 사고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Born in 1974, lives in Incheon.
KIM Yujung graduated from Dankook University where the artist studied Occidental painting and earned a Ph.D. in Occidental Painting at Dankook University and also majored in Art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orea University. The artist exhibited her works in Korea (the Kwanhoon and Sunkwang Gallery) and China, and from 2015 moved in the residency of the Incheon Art Platform. KIM Yujung explores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connecting between the tradition and contemporary art through fresco works, and introduces the working method accommodating the tradition in the modern way. The plants and garden in the black screen are made in the way scratching on the screen before lime (plastered wall) goes dry after applying the black melanite through fresco technique, and this is a landscape which is generated by an action seeking for shape through scratching on the screen as a result of this tortuous process. The artificial or urbanised nature which emphasizes the naturalness and the nature which was cut to satisfy humans' needs presents the multilateral viewpoints, such as human desire generated from anthropocentricism, selfishness of civilization and a view of nature in urbanism. The various scenes of the artist's works, for example, the contradiction of canvas painting using fresco technique, flowerpot existing between the nature and artificial products, and the plants which grow wild not in the field but between concrete walls, botanical garden which is immigrated from the origin of life represent the artist's viewpoint about the living things maintaining the life in the dual status. KIM Yujung wants to broaden liberal art thinking in cooperation with people who have various liberal art thinking backgrounds during the stay in the residency.

김춘재

KIM Cho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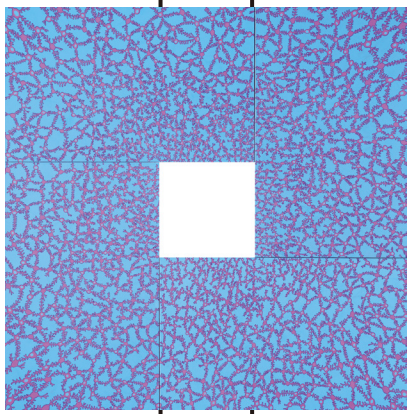
강산무진
Endless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259.1×173㎝
2014

1981년 출생, 서울 거주.
김춘재의 작업은 작가의 이상과 현실의 풍경이 충돌하는 순간 시작된다. 작가가 가진 관념은 산수화의 이상향과 통하는 것으로서, 이상적인 자연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삭막한 현실의 충돌에서 오는 불안, 의심, 호기심 등이 작업의 원동력이 된다.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사건과 사고, 상황 등의 관찰을 통해 '세계'라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삶을 관조하는 데 관심이 있다. 입주 기간에는 인천지역의 풍경과 그 개발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조사하여 인천이라는 공간이 가진 독특한 성격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하나의 도시-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한 탐구가 될 것이며, 그 속에서의 삶의 모습에 대한 흔적이 될 것이다.
김춘재는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chapter 4. 강산무진»(2014), «chapter 3. 낮과 밤»(2013)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젊은 작가를 소개하는 다양한 기획전시에 참여했고, 제34회 중앙미술대전(2012)에 선정된 바 있다.

Born in 1981, lives in Seoul.
KIM Choons's work is started from the moment when the artist's idea and reality is colluded. The artist's conception is related to the utopia of landscape painting, and his work is motivated from the anxiety, suspicion, curiosity which generated from the collision between an yearning for an ideal natural world and stark reality. He is interested in thinking about the world and meditating life through observing certain incidents, situations facing in the real world. During the stay in the residency, he plans to look into the landscape and development process of Incheon, observe and research the phenomena that occur there, and search for the unique spatial character which exists in Incheon. This would be a research about the process creating a city-world, and a trace about the life within it.
KIM Choons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the graduate school, and held the solo exhibitions, such as ‹Chapter 4. Gangsanmujin›(2014), ‹Chapter 3. Day and Night›(2013). He participated in various exhibition planning projects which introduce the young artists, and was selected at the 34th the Central Art Contest (2012).

김푸르나

KIM Pureuna



The Borderless Body- 뉴런2
The Borderless Body- Neuron2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189.5×189.5㎝
2015

1987년 출생, 인천 거주.
김푸르나는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회화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드로잉과 페인팅을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2010년부터 인천에서 다수의 공공미술프로젝트를 기획, 참여해왔다. 작가는 주체와 객체의 모호성을 가진 신체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자아와 타자의 경계뿐 아니라 안과 밖의 경계, 남성과 여성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 등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고정된 사고를 해체시키는 다양한 시각예술 작업을 진행한다. 최근(2015년) 작가가 직접 기획한 개인전에서는 이러한 신체를 공간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입주 기간에는 인천아트플랫폼 주변 개항기 근대 건축물들의 역사적 공간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새로운 것에만 익숙한 시민들에게는 기존에 느낄 수 없었던 문화적 향수를 선사하고, 작가 자신에게는 작업적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시도할 계획이다.

pureuna.blogspot.kr

Born in 1987, lives in Incheon.
KIM Pureuna studied painting in Formative Arts College at Incheon Catholic University and graduated from masters course in department of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 artist made the artwork based on drawing and painting, and from 2010 she planned a lot of public art projects and participated in them. The artist proceeds various visual art works dissolving the fixed mindsets which are divided into binary code, such as the boundaries not only between self and the other, but also inside and outside, man and woman and life and death by using the material like a body which includes the ambiguity between subject and object. Recently (2015), in the solo exhibition which the artist personally plans, the artist makes an effort to use various mediums actively through extending this body into the area of space.
During the stay in the residency, the artist plans to do some projects by using the historical spatiality of the modern buildings built in the opening port era around the Art Platform. Through the project tearing down the boundary between time and space, she would provide the citizens who are accustomed to new things with cultural nostalgia which could not feel before and pave the way to expand the scope of the artist's work.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is aim, she plans to try to cooperate with various artists.

더 바이트 백 무브먼트 The Bite Back Movement

네오조선의 샤먼들
The Shamen from the Neo Joseon
OH MY GOD: 2100년 당신의 믿음
OH MY GOD: What you believe in 2100AD
c-프린트
c-print
2014-2015

이승연(한국)과 알렉산더 어거스투스(영국)로 구성된 더 바이트 백 무브먼트는 서울과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과 동물의 이야기들을 주요 소재로 하며 "인간의 모든 역사는 신화이고, 우리 모두는 신화의 주인공이다. 자신이 사라져도 이야기가 남는다면?"과 같은 생각들로 작업을 이어간다. 이들은 2013년 런던 섬머셋하우스(Somerset House)에서 개인전을 선보이며 주목받았고, 이 작품은 2014년 영국 국립초상화박물관(National Portrait Gallery) 공식 아카이브에 등록되었다.
그들의 최근작 ‹네오조선의 샤먼들›은 2100년 네오조선으로부터 9명의 샤먼이 선택된다는 가정 아래 시작된 오브제 및 퍼포먼스 시리즈다. 그들은 신화 및 전래동화 등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아 현재를 반영하고 미래의 새로운 네러티브를 그려낸다. 무당, 샤먼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춤추는 사람으로, 춤을 통해 아프거나 슬픈 사람을 돕고 망자와 산 자를 이어준다. 보통 사람의 모습을 한 샤먼은 결국 사람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모자'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하늘로 높이 솟은 교회의 첨탑처럼 사람의 머리 위에 놓인 모자로 소통한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인천특유의 해상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를 2100년의 미래신화로 다시 이야기 하려고 한다. "하늘과 땅 사이를 춤추는 사람들, 우리들, 바로 당신이 모자의 주인공이다."

더 바이트백 무브먼트(이승연, 알렉산더 어거스투스)
www.thebitebackmovement.com
www.facebook.com/Bitebackmovement

The Bite Back Movement is an international artist duo consisting of Seungyoun Lee (Seoul, South Korea) and Alexander Augustus (Brighton, UK). They are intrigued by narratives and mythologies, both ancient and contemporary. This artwork discusses the role of Shamans in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through a series of hat-like sculptures. Each hat represents a different function and narrative of the future shaman; storytelling, communicating with ancestors, protection during childbirth, the balance of man and nature, and the maintenance of good physical health. The hat adorns the shaman like a steeple on a church, the head is closest to heaven, and the feet are closest to the earth; the shaman dances between these realms with the humans.
In 2016 The Bite Back Movement has been fortunate to have secured a number of international projects, including a residency in Incheon Art Platform, Geumcheon Residency and Stiftung Künstlerdorf Schöppingen, Germany. They will continue to develop the work on future mythology in a global context.

The Bite Back Movement
(LEE Seungyoun, Alexander Augustus)

보이치에흐 길비츠 Wojciech GILEWICZ

Painter's Painting
Video (HD)
18'
2015 work in progress

1974년 출생, 폴란드 바르샤바와 미국 뉴욕 거주.
보이치에흐 길비츠는 회화매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식을 취하며 예술과 공간의 경계를 살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길비츠의 작업은 인식과 그 바탕이 되는 문화적 조건짓기를 정하는 작동기제에 관해 생각하게 한다. 작가는 적극적으로 관람객과 소통하고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뿐 아니라 가장 최근에 이뤄지는 예술활동,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는지에 관련한 신화와 고정관념들을 다루는 논쟁들을 작업으로 끌어들인다. 작가는 오늘날 영상뿐 아니라 회화가 하는 역할을 둘러싼 쟁점들을 다루고, 사회 전반을 비롯한 예술기관과 예술을 둘러싼 체계와 맥락 안에서 작가와 예술작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 탐구한다. 사실 길비츠가 진행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작품을 실현하는 것은 거의 언제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과 삶, 사건들, 사람들에 관한 장소 특정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그가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진행 할 프로젝트는 또 다른 형태로 이뤄질 것이다.

www.gilewicz.net

Born in 1974, lives in Warsaw Poland and New York USA.
Drawing on his experience of the painting medium, he creates formally varied works, which seek to investigate the boundaries of art and space. Gilewicz's art provokes reflection on the mechanisms which govern perception and its cultural conditioning. The artist actively collaborates with the viewer, whom he involves both in his projects and in polemics about myths and stereotypes concerning the most recent art, its reception and interpretation. Gilewicz takes on board issues related to the role of painting as well as video in today's world, the status of the artist and artistic work in the context of the institution and the art system as well as the society at large.
His projects are rarely planed in advance really. Almost always his realizations are site-specific reactions to the surrounding reality, life, events and people he meets on site. Therefore his Incheon Art Platform project could take different forms.

서해영

SEO Haeyoung

산에서 조각하기-삼각산 조각하기
Sculpting in a mountain 1-Sculpturing Mt.Samgak
단채널 비디오
single chanel video
1313'
2012

1983년 출생, 경기도 성남 거주.
서해영은 서울대학교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14년 김종영 미술관에서 «산에서 조각하기» 첫 개인전을 가졌다. 2013년, 2014년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아카이브 작가로 등록되었고,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미술창작 레지던시에 참여한 바 있다. 작가는 '조각'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매체의 한계와 가능성을 실험해오고 있다. 오랫동안 전통적인 조각교육을 받아오면서 관념적이고 결과중심의 획일적인 작업방식에 한계를 느껴왔다고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조각은 무엇일까" "현대조각의 '조각'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작가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조건과 경험을 반영하는 과정중심의 조각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조각의 방법론을 찾아가고 있다.
입주 기간에는 ‹여성미술가를 위한 도구 만들기› 연작을 진행하면서 여성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시도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지역연계 작업으로 작가의 어머니의 고향인 섬 백아도를 찾아가 그곳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연결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seohaeyoung.com

Born in 1983, lives in Seongnam, Gyeonggido.
SEO Haeyoung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Sculp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graduate school. In 2014, the artist held the first solo exhibition, «Carving in the Mountains» at Kim Chong Yung Museum. She was registered as a archive artist of the Drawing Center at Soma Museum of Art in 2013, 2014 and participated in the Go-yang Creating Art Residency at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The artist has experimented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mediums centered on 'sculpture'. As the artist studied the traditional sculpture education, she felt the limits of the result oriented, abstract and monolithic working ways. With the questions about the sculpture, such as "what is the sculpture which I can do?" "what is the 'sculpture' in the modern sculpture?", the artist seeks the new methodologies for sculpture, proceeding the process oriented sculpture projects reflecting the artist's individual condition and experience of the life.
During the stay of the residency, while doing the series works, ‹Tool Making for the Women Artists›, the artist is going to try to cooperate with various people for the working environments suitable for the conditions and situations of women. In addition, as a part of the works in cooperation with the area of Incheon, the artist is going to visit the Baek-a Island where is the hometown of the mother of the artist, connect the past and present, and then record them.

손승범

SON Seungbeom

소리없는 전쟁
A silent war
한지에 채색
color on korean paper
210x122㎝
2015

1985년 출생, 인천 거주.
손승범은 인천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였으며, «얼간이, 재주를 부리다»(2012), «어릿;한 이야기»(2013), «허망한 염원»(2015) 등의 개인전을 진행하였다. 작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자기 고백을 서커스와 마술이라는 특정한 소재를 통해 그려내 왔다. 이는 자신의 존재 성찰과 잠재의식에 침잠되어있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충돌하면서 일으키는 혼돈과 갈등에 대한 물음들이었다. 현재는 잊혀지거나 변질되어가는 본질들에 관해 탐구하고 동시대 쟁점이 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풍자하거나 희화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입주 기간에는 인천 중구지역을 중심으로 도심 내에 버려진 폐가구들이나 나름의 의미를 지닌 물건들을 수집해 기존의 평면작업에서 설치나 입체작업,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작업의 스펙트럼을 넓혀나가고자 한다.

blog.naver.com/rocksbm

Born in 1985, lives in Incheon.
SON Seungbeom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Incheon and studied Korean painting at the graduate school, and held various solo exhibitions, such as «Nerds, performs a trick»(2012), «Tongue-sting;ing Story»(2013), «A Forlorn Yearning»(2015). The artist has expressed the self-confession about the desire of human beings who live in the modern times through certain subject matters like circus and magic. This is the questions about the chaos and conflict resulting from the collision between the reflection on their existence and the critical viewpoint about the modern times which is withdrawn in subconsciousness. He researches about the essentials which were forgotten and deteriorated now, and at the same time he is interested in the social problems which become the contemporary issues, and then make a caricature or satire of them. During the stay in the residency, while using the garbage furnitures or things which have their own meaning but left out around the Jun-gu in Incheon area as the work materials, he is going to extend the spectrum of work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different genres, installations, three-dimensional works beyond the existing two-dimensional works.

신민

SHIN Min

견상자세 중인 맘바생활
Downward Facing Dog Yoga for Mcjob
맥도날드 포장지, 혼합재료
mcdonald's rubbish, mixed media
308x200x153㎝
2014

1985년 출생, 경기도 용인 거주.
신민의 작업은 약자, 특히 여성에 대한 긴 폭력의 역사와 그 근본을 탐구하는 것에 있다. 그녀는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기 위해 약자를 파괴 직전, 혹은 파괴될 때까지 몰아가는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신민은 찰흙으로 원형을 만들어 그 위에 10겹 이상 종이를 덧발라 캐스팅하고, 그 위에 연필과 크레용으로 채색하여 작품을 완성시킨다. 그녀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연필 드로잉들은 그녀가 표현하려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정형화되지 않는 종이와 연필의 유한한 물성은 신민의 작업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현재 신민은 전쟁과 성의 생물학적 근원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녀는 전쟁과 폭력의 근원에 대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생물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 시스템 안에서 암컷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반복돼 오고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더 나아질지를 거시적인 관점으로 작업하려 한다.

cargocollective.com/daughternose
daughternose.com

Born in 1985, lives in Yongin, Gyeonggido.
The main interest of SHIN Min's works is based on a long history of human violence against the weak, especially women, and the study of its root. The works are related to the situations that drive the weak to a dead-end and complete destruction in which the strong has a dominant control over the weak. How SHIN Min produce her artworks; making original form with clay and applying ten or more layers of paper on it for casting. On this paper object, sketching with pencils and coloring with crayons. She considers pencil drawing as the most efficient way to deliver her emotions onto her works. An art object made with paper and pencil holds unfixed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is different from a metal object that is fixed, hard, and heavy in that the former is easily damaged by water, faded by sunlight, erased or smeared. The finite materiality gives 'aliveness' to my works-aliveness a piece of rose has. Currently, SHIN Min is working on studying a biological root of war and sex. She is interested in the root of war and violence, and the biological approach to it that how living things are programmed, female's role in the system, how repetitive the human history is, and what we can do to change it, from a broader aspect.

양유연

YANG Yoo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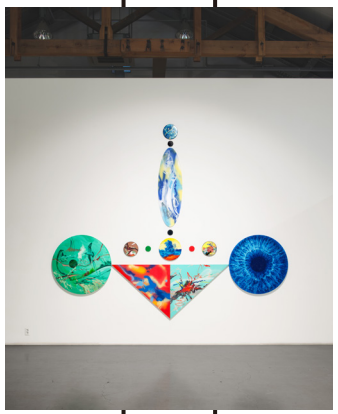
전상
Truly
한지에 아크릴
acrylic on korean paper
41×53㎝
2014

1985년 출생, 경기도 성남 거주.
양유연은 인간의 삶이 개인의 의지로만 움직이기보다는 사회라는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다고 인식한다. 그에 따라 가장 개인적인 감정이면서도 사회집단에 의해 보편적으로 유발되는 '고독'을 화면 안에 극대화시켜 표현한다. 초기에는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환상을 가미해 심상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 이후에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함과 동시에 확장되었고 동시대의 모습과 사건들을 허구적인 서사와 결합하면서 실제 풍경이나 인물, 신체 일부분, 상흔 등의 소재를 조합하여 작업하고 있다. 향후 작업에서 다룰 소재는 마네킹과 같은 인위적인 대상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잊혀져가는 오래된 공간의 피동적 존재들을 그림으로써 현시대의 비정상적인 재개발과 변질된 사회에서 소외되어 가는 소수자의 모습을 대변하려고 한다. 이로 하여금 현대인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내밀한 감정의 상기를 돕고자 한다.

Born in 1985, lives in Seongnam, Gyeonggido.
YANG Yooyun believes that the life of the human beings is not influenced by the individual's will, but influenced sensitively by the environment like society. Accordingly, she expresses the 'loneliness' which is the most private emotion and caused generally by social groups through maximizing in the screen. In early days, she focused on embodying imagery through adding the illusion on the artist's private story. From that time on, her view on society has been changed and at the same time extended, and now she is working by using the materials like the real landscape, person, part of the body, scar, and so on through connecting the contemporary features, events and the fictional epic. In future works, she is going to deal with the material like the artificial object, that is, mannequin. Through expressing the passive existences of the old space where forgotten with the lapse of time, the artist speaks for the minorities who are alienated in the corrupt society and the abnormal redevelopment in this era. Through this, she wants to help to remind modern people of the innermost feelings which they have.

위영일

WEE Youngil



6-3-5-2-6-2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122×180㎝
2015

1970년 출생, 경기도 부천 거주.
위영일은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작가의 주요 관심사는 동시대인들의 관념, 사회적, 문화적인 현상들을 고찰하는 것이며 그것을 다양한 수단으로 예증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최근의 작업들은 설정성에 관한 작업들인데, 그중 하나는 미술사를 바탕으로 가로세로 각 6단계로 재설정한 매뉴얼 위에 주사위를 6번 연속적으로 던져 나온 경우의 수열을 매뉴얼과 비교, 해석하여 회화로 옮기는 작업이다. 작가는 이것을 알레아토릭 페인팅(Aleatorik Painting)이라고 칭한다. 입주 기간에는 2013년 초반부터 시작한 알레아토릭 페인팅 프로젝트(Aleatorik Painting Project)를 계속 진행하면서 다른 설정성에 관한 작업들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 열릴 개인전 준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할 계획이다.

blog.naver.com/wee012

Born in 1970, lives in Bucheon, Gyeonggido.
WEE Youngil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the same department at the graduate school. The artist's main concern is to consider the contemporary conception, social-cultural phenomena, and he is making the artworks illustrating them in a variety of means. The recent works are centered on the issue of the setting, and one of them is to express the number of cases made from throwing a dice six times in a row on the manual which reset stage by stage (6 stages in total) in width and length based on the art history into the painting after interpreting and comparing them with the manual. The artist calls this as Aleatorik Painting. During the stay in the residency, while he proceeds the Aleatorik Painting Project which was started from early 2013, he plans to run parallel with the other works on the issue of the setting. And he plans to concentrate on preparation for the solo exhibition which would be held in November, 2016.

윤대희

YOON Dae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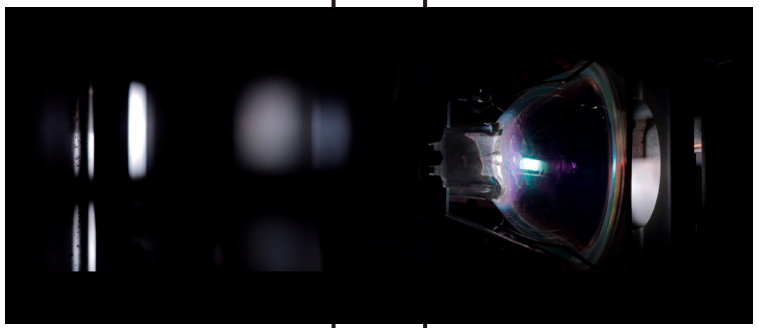
자라난다자라난다자라난다
Growsgrowsgrows
종이위에 목탄
charcoal on paper
280×684㎝
2015

1985년 출생, 경기도 의정부 거주.
윤대희는 인천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드로잉을 기반으로 한 평면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작가는 일상생활과 대중문화의 산물 속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욕망과 불안, 불신에 대한 감정들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사용한다. 그는 다양한 '불안감정'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 삶의 자극제로 받아들인다. 다양한 네러티브적 구성을 보여주는 그의 회화작품은 '불안감정'을 '생존의 필연적 에너지'로 치환시키며 개인과 외부세계와의 관계에 있어 삶의 목적 지향적 원동력으로 재정의 하고 있다. 다시말해, 작업에서의 '불안감정'은 생산적 과정으로서의 감정을 말하며, 이를 스스로 이해하고 표출하는 것이 윤대희 작업의 의미이다. 입주 기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다양한 매체적 확장 실험을 시도할 예정이다.

blog.naver.com/yri00

Born in 1985, lives in Uijeongbu, Gyeonggido.
YOON Daehee studied western painting at the University of Incheon and the graduate school, and from 2010 until now, continued to proceed the two-dimensional works based on drawing. The artist's main concern is about the human desire, anxiety and distrust which experienced within the daily life and mass culture. He understands the anxiety as a productive process, express it in such a way, and defines it as a goal-oriented driving force for the lif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external world. In his works mainly about 'anxiety', through using various experimental, pictorial expressions, he intends to show that 'the anxiety could be a community point which can be changed into 'an essential energy for life'. During the stay in the residency, in addition to the works in progress, he tries to extend the mediums in a variety of ways.

이민우 LEE Min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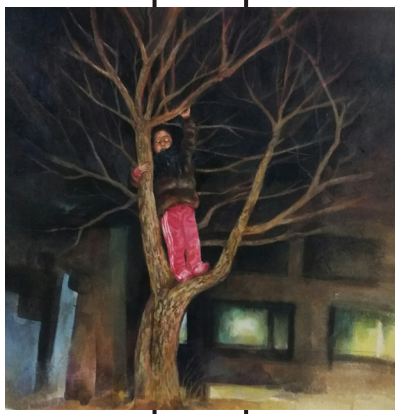
To Project To
2 채널 비디오, 4.1 채널 사운드
2 channel video, 4.1 channel sound
9'40" on loop
2014

1986년 출생, 캐나다 거주.
이민우는 최근 캐나다 구엘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사진과 영화에서 사운드와 설치에 이르는 폭넓은 작업을 펼치고 있다. 그의 작업은 이민과 이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이뤄지는 움직임을 특징으로 삼는다. 이민우 작가의 작업은 형식주의적이며, 대칭적 기하학 형태가 겹쳐지는 종이접기처럼 미묘하고 혼란스럽기도 하다. 작가는 구조영화(structural film)와 미니멀리즘 음악에서 착안하여 위상변위(phase shifting)와 귀환회로(feedback loop), 반복을 통해 무한한 회귀를 향한 제스처를 보인다. 목적이나 끝맺음이 없이 진행되는 작업을 통하여 작가의 제스처는 시지프스의 몸짓과도 긴밀한 유사성을 띈다. 이번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그는 거리(distance)와 지평(horizon)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인천이 아시아의 주요한 허브이자 항구 도시라는 점이 그의 작업에 주요한 키워드로 작용할 예정이다.

minwoolee.ca

Born in 1986, lives in Canada.
LEE Minwoo Recently graduated with an MFA at the University of Guelph. LEE Minwoo's practice ranges from photography, film, to sound installations. Channeling his experience on immigration and relocation, his work is often characterized by perpetual movement.
LEE Minwoo's work is formalist, delicate and chaotic like an origami palindrome. Taking cues from structural film and minimalist music, Lee gestures toward infinite regression through phase shifting, feedback loops, and repetitions. With practice that proceeds without a goal or an end, his gestures closely resemble that of Sisyphus.
In his residency, he plans to take on the subject of distance and horizon. With Incheon being one of the central port hubs in Asia, Lee plans to explore such site as a creative node in which it may germinate new thoughts in his practice.

조원득 JO Wondeuk



요동치다
shake
한지에 혼합재색
color on korean paper
40×31㎝
2015

1981년 출생, 인천 거주.
조원득은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 휴학 중이다. 지금까지 «약육강식»(2007), «묻다»(2015) 등의 5회 개인전을 비롯해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작가는 필연적으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삶과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타인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또는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과 아픔의 경험 그리고 그 기억을 표현한다. 작가는 폭력과 억압으로 가득 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의 불완전한 인간의 삶을 하나의 기호로서 인간의 몸과 고유의 얼굴로 표현하고 있다. 입주 기간에는 인천의 독특한 지역적 특성이 가장 진하게 담긴 시장을 방문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의 인간을 관찰하여 작품에 반영하고자 한다.

Born in 1981, lives in Incheon.
JO Wondeuk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and completed a master's degree at the graduate school. She is currently taking a temporary leave of absence from the doctor´s course. Until now, she participated in various group exhibitions including five solo exhibitions, such as «Jungle Law»(2007), «Ask»(2015). Though the works, the artist wants to speak about the life and relationship of the human beings who necessarily live in social structure. She expresses the experience of conflict and pain, the memory generated in the relation with the others or in the process of forming self identity. She expresses the imperfect human life in our society which filled with violence and repression into the human body and their own unique face as one sign. During the stay in the residency, she plans to visit the market where reflects a unique regional characteristics most vividly, observe the human beings there and gather materials in life in the fast lane, and reflect them on her works.

줄리 인선 윤

Julie Insun YOUN

나타나는 회화
Appearing Painting #1
디지털 프린트
digital print
48×33㎝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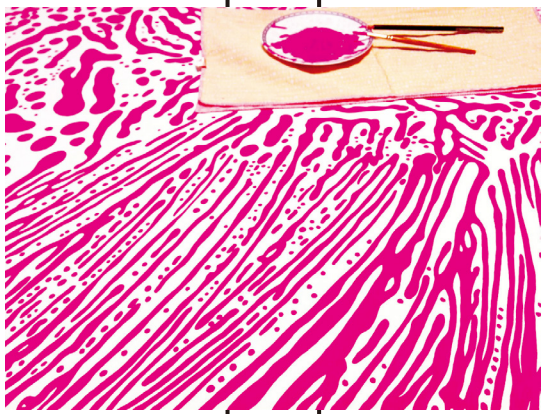
1979년생, 서울 거주.
줄리 인선 윤에게 있어 예술은 일상의 진부함 가운데 시적 순간, 비언어적인 틈, 비일상을 기입하려는 시도이다. 일상에서 발견된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를 재인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결함이 있는 사진의 모습을 재현하는 회화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회화적 의도'보다는 '회화의 존재'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회화를 비회화적으로 인용하는 작업에 관심을 갖는다.
작가는 그래픽과 오브제 설치, 미디어를 사용하여 사색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오랜 회화 작업 이후 본인의 최근 작업들을 '포스트 페인팅'이라 명명하며, 이는 회화를 전혀 포함하지 않으면서 회화를 반영하고, 참조하고, 언급하는 프로젝트를 칭한다. 그래픽, 인쇄 기술을 비롯한 다른 매체를 활용해 더 큰 규모로 '포스트 페인팅' 작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화이트 큐브가 아닌 흔히 예상할 수 없는 공간에서 '회화의 잔여물'을 급작스럽게 시각화하는 작업을 펼쳐볼 계획이다.

www.julieinsunyoun.com

Born in 1979, lives in Seoul.
Julie Insun Youn considers her practice as a constant a constant trial to put a poetic, languageless, and nonordinary crevice into the very banal moment of everyday life. Collecting 'found images' from architecture, nature and space, the artists has been 'referencing' and 'rediscovering' them in the form of blurred photo-painting. Spending more than ten years on painting, my focus turned into the 'ontology of painting' rather than its meaning, and started to reference 'painting' itself in a non-painterly way. The artist brings graphics, installation, and media together in order to create a contemplative space. Youn calls her recent work as 'post-painting': a project reflects, references, and cites painting when it never includes a painting. Youn plans to produce 'post-paintings' with graphics, printing techniques, and other media in greater scale, which might occupy an unexpected, non-whitecube space with a sudden visualization of 'remainder of paintings' without a painting.

최선

CHOI Sun



오수회화(적분의 그림)
Wastewater Painting (Integral Calculus Painting)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87×116.8㎝
2014

1973년 출생, 서울 거주.
최선은 한국 역사의 수직적인 시간축과 동시대 문화의 수평적 공간축이 겹치는 지점으로부터 기존의 인식 틀을 벗어난 또 다른 시각 미술의 대안성을 고민하고 있다. 관람객의 체온에 녹아 버리는 '돼지 한 마리에서 짜낸 기름 그림'과 공기 중에 유출된 무색무취의 맹독성 화학물 불산(HF, Hydrofluoric Acid)을 채취한 그림 등을 선보였다. 작가는 서구로부터 통념적인 회화의 형식을 빌려, 환영을 넘어서 자신과 사회의 현재적 문제를 어떻게 시각적인 감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를 실험해왔다. 그는 모든 위대한 역사도 개개인의 생각과 활동의 모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하는 나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한다. 작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 공통적으로 하는 '숨쉬기'의 흔적을 차별과 편견을 넘어 캔버스 위로 옮겨가 국경과 시간의 제한을 넘어 '소식(消息: 숨을 나누는)'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www.ssunya.net

Born in 1973, lives in Seoul.
CHOI Sun considers another alternative in visual art which is broken with the existing cognitive framework from the point where the vertical time axis of the Korean history is overlapped with the horizontal spatial axis of the contemporary culture. For example, the artist showed the 'Picture Painted by Lard Squeezed in a Pig' which is melted away at body heat and a picture used by colorless and odorless, deadly poisonous chemicals, that is, hydrofluoric acid which is spilt in the air. Through borrowing the conventional form of picture from the West, the artist has experimented another visual sense capturing contemporary problems within us including the artist and society beyond an illusion. The artist plans to proceed the Butterfly Project implying that all truly great history was begun from the gathering of individual thoughts and activities. This is to move the trace of 'breathing' which although invisible, common in all human beings, on the canvas beyond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nd this 'Sosik' is going to continue afterwards beyond the limits of the border and time.

최현석

CHOI Hyunseok

1985년 출생, 대전 거주.
최현석은 살아가면서 마주한 현실 속 불편한 감정과 기억들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관조하듯 작품으로 하나하나 옮겨낸다. 작가의 작품은 원근법이 사라진 평면적인 구도, 사실적 묘사, 지필묵이라는 전통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 얼핏 기록화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기록화가 그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스스로 위대함과 대단함을 표출하려는 권위의식의 전유물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작가는 현실을 관조하는 냉철한 관찰자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작품을 통해 순수한 기록화의 모습으로 전복(顚覆)시킨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사건 속 불편했던 진실과 의문들에 대해 다시금 되짚어보고 있다.

choihyunseo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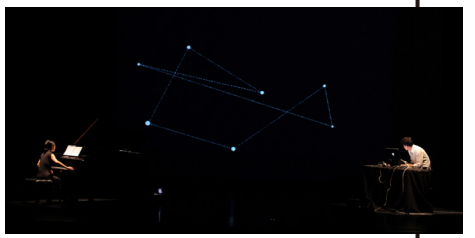
Born in 1985, lives in Daejeon.
CHOI Hyunseok expresses the uncomfortable sympathy and memory which felt in the reality in his lifetime one by one into the works as if meditating from the viewpoint of observer. Because he uses the two-dimensional composition without perspective, realistic description and conventional materials, such as paper, writing brushes and ink stick, at first glance, his works remind us of record picture. The artist felt that a lot of record pictures in the museums are more the exclusive properties of authoritarian mind which is inevitable to express its greatness than medium delivering them visually. Therefore, as a sober observer, the artist intends to look dispassionately at the realities, subvert such a state and restore a pure record picture through his works. And through this process, he looks back and reflects on the uncomfortable behaviors and questions in the past incidents.

장례조상도(葬禮弔喪圖)
Good mourning

삼베에 채색
color on hemp fabric
110×110㎝
2014

그레이코드, 지인

GRAYCODE, jiiiiin



GRAYCODE와 jiiiiin은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을 만드는 전자음악 작곡가이다. 이들의 작업은 음악을 다른 장르의 현대 예술과 상호 작용하는 복합 예술 작품이며, 더불어 현대 예술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GRAYCODE와 jiiiiin의 작품은 '데이터'와 '공간'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기본적인 정보, 숫자로 표현되는 최소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 내에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한다. 또한, 컴퓨터로 만들어진 사운드와 이를 형상화한 영상 또는 비주얼 등의 다른 장르와의 인터렉션을 통해, 많은 감각 기관을 이용한 효과적인 작품 감상을 추구한다.
이번 입주 기간에 진행할 작품은 인천에 위치한 특정 공간의 도면 데이터를 이용한 오디오 비주얼 작품 ‹동시적 공간›이다. 이 작품은 공간을 구성하는 데이터와 숫자 정보를 이용하여 작품으로 창조된 새로운 공간이며 오디오-비주얼의 형태이다. GRAYCODE와 jiiiiin은 이번 작품 ‹동시적 공간›을 시작으로 실존하는 공간에서의 예술적인 가치를 찾아 작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려 한다.

www.theGRAYCODE.com
www.jiiiiin.com

생각의 도구
Tool of Th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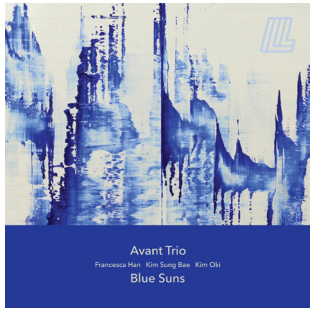
상
Stacked image

피아노, 전자음악
piano and live-electronics
ca.11'
2011

단채널 영상
single channel video
Ca.08'
2013

GRAYCODE and jiiiiin are the electronic music composers making a music using computer. Their works are the complex works of art as a result of interacting with modern art of the other genres, and additionally, they show various ways of appreciating contemporary art. The works of GRAYCODE and jiiiiin could be summed up in a word, that is 'data' and 'space'. They seek to make the artworks within the space where we can perceive by using the least data expressed as a basic information or number. In addition, through the interactions with the other genres, such as the sound made by computer, the images or visuals embodying these, they pursue the effective ways of appreciating artworks by using a lot of sense organs.
The work which will be shown in this Incheon Residency Program is an audio-visual work, ‹Simultaneous Space› using the floor plan data of a specific space situated in Incheon. This work is a new space created as a work using the data and number information composing a space and an audio-visual form. Starting from this work, ‹Simultaneous Space›, GRAYCODE and jiiiiin plan to discover the artistic value in an existential space and continue to make it into a artwork.

김성배 KIM Sungbae



1975년 출생, 인천 거주.
김성배는 재즈, 클래식, 국악, 일레트로닉, 사운드 아트 등 장르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만의 독창적인 소리를 찾아내기 위해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다. 또한 컨템포러리 뮤지션 아티스트 협동조합인 ILILSOUND를 만들어 다양한 장르의 소리 아티스트들의 협업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는 2015년부터 인천아트플랫폼에 머물며 개항 이후 인천에 내려앉은 구한말의 조선 문화에 대한 미래적 대안성을 찾음과 동시에 황해도에서 전해 내려온 인천에 있는 황해도 굿 음악에 대해 인류학적 고찰을 작업으로 이끌어 왔다. 이를 위해 현재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음악적 소스와 예술적 가치 등을 한 곳에 녹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찰 중이다. 그리고 인천이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시대적 방향성을 토대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굿 음악에 대한 원류를 동시대화 하며 재생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성배는 개인적인 작곡 작업을 통해 영상, 무용, 사운드아트 등을 융합하여 샤머니즘적인 한국예술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성배 퀸텟 1집 (2013)
KIM SUNGBAE QUINTET (2013)
세움 1집 (2014)
SE:UM (2014)
아반트 트리오 1집 (2015)
AVANT TRIO (2015)

Born in 1975, lives in Incheon.
KIM Sungbae has done the artistic activities to look for his own unique voice, not tied to the genres, such as jazz, classic, Korean traditional music, electronic and sound art. He is also busy building himself for the cooperation among the artists in the various music genres through setting up the ILILSOUND which is a cooperative of the contemporary musician artists. He tries to take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the Korean exorcism music('gut') in Incheon handed down from Hwanghae Province(now, belonging to North Korea) while seeking the futuristic alternatives which could substitute the Korean culture of the late Chosun Dynasty in Incheon since the opening it's ports to trade. For this purpose, he is contemplating on the ways in which could fuse all the musical sources that currently exists and the artistic values into one. And he, based on the directionality of the times which Incheon has historically, aims to reproduce and contemporize the headwater of the 'gut' music handed down. He is going to take a more systematic approach to the Korean shamanistic art while fusing the image, dance and sound art into one by the individual composition work.

김성용 KIM Sungyong

1976년 출생, 인천 거주.
김성용은 2011년 대한민국 무용 대상 BEST5 선정, 2013년 한국무용예술상 안무상과 댄스비전 코리아 최우수 안무가상 수상, 2013년 서울무용제 안무작 '초인'으로 5개 부문(대상, 남녀 연기상, 음악, 미술) 수상, 2014년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초청안무가로 선정된 바 있다. 작가는 아시아를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의 여러 컴퍼니와 공동 작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대 무용의 정체성과 미학을 세계인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입주 기간에 진행할 신작 ‹린치›는 작가가 '폭력'을 주제로 선보이는 세 번째 작품으로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것 외에 보이지 않는 폭력, 그리고 그에 노출된 자아와 집단의 욕망을 표현한 작품이다. '반복되는 유무형의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현대인'의 이야기를 담은 이번 작품은 폭력에 침묵하는 다수의 행동은 또 다른 무서운 폭력으로 작용한다는 그의 생각을 담고 있다. 고통받는 개인과 집단 속에서 살아남으려 하는 이를 외면하는 다수의 잔인한 침묵, 불편한 시선, 압박 속에 괴로워하는 '나'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두 명의 여무용수 박은영과 KAKIZAKI Mariko가 함께 풀어낸다.

www.facebook.com/sungyong.kim.58

린치
Lynch
퍼포먼스-김성용 안무, 박은영, 미리코 카키자키 출연
performance-choreographer KIM Sungyong,
Dancer PARK Eun Young, KAKIZAKI Mariko
60'
2016

Born in 1976, lives in Incheon.
KIM Sungyong was chosen as one of the BEST 5 at the Korea Dance Awards in 2011, and won an award for the Best Choreography at the Korea Dance Art Awards in 2013 and for the Best Choreographer at the Dance Vision Korea. And, he also won four prizes including the Top Prize, Best Actor and Actress, Best Music, Best Art Direction with the work, 'Superman' choreographed by him at the Seoul Dance Festival in 2013 and was chosen as the guest choreographer in the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in 2014. The artist wants to share the identity and aesthetics of the Korean contemporary dance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joint works with many dance companies in Europe and U.S. beyond Asia. A new work, ‹Lynch› which will be proceeded during his stay in the residency is the third work which deals with 'violence' and expresses invisible violence beyond physical and oppressive violence, self exposed to violence and collective desire. In this work which captures the story about 'modern people suffering from the repeated material and immaterial violence', he presents his belief that the action of the silent majority on violence is another terrible violence. Two women dancers, PARK Eun Young and KAKIZAKI Mariko express the individual who suffer, cruel silence of the majority who turns its face away from the person endeavoring to survive in a group, uncomfortable eyes, and story about you and me who are tormented under pressure.

덕스 씨어터

Dirks Theatre

덕스 씨어터는 다양한 분야, 서로 다른 문화를 넘나들며 예술가들과 협력하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공연 퍼포먼스팀이다. 이들은 예술실천으로써 연극을 믿고, 극장의 공간과 일상을 살아가는 신체가 긴밀한 관계를 띠는 것을 강조한다. 수행적인 신체(performative body)와 상상력을 곰곰이 살피는 것을 통해 삶에서 시적인 것을 되찾고, 예민한 감성과 창조성을 연극적 공간으로 바꿔내는 능력을 길러내고자 한다. 덕스 씨어터는 집단적 창조성과 협력적인 호기심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동시대 사회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끊임없이 구축되고 해체되는지를 살핀다. 팀의 주요작업은 동작을 활용해서 기존의 텍스트를 해석하고 되살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뤄져왔다. 덕스 씨어터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과 협업하여 자신의 상상과 신체적 기억, 스스로의 전통을 살펴보게 하는 고유의 극장경험을 선사한다.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들은 도시에서의 삶, 그안의 사람들 이야기, 수행적인 공간(performative space)들이 어떻게 혼종적 형태의 표현과 재현에 영향을 주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동시에 협력하는 예술가들을 위해 예술적 관계망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입주 기간에는 앞으로 진행할 공연을 위한 스케치와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형태와 동시대적인 형태를 아울러 한국의 역동적인 연극씬으로부터 영감을 받고자 한다.

dirkstheatre.weebly.com

The Elevator Key

공연 퍼포먼스
theatre performance
52'
2015

Dirks Theatre is a theatre company passionates creative theatre performances by collaborating with artists across various disciplines and cross-cultural heritage. They believe in theatre as a practice, emphasis on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atre space and the daily living bodies. Through interrogating the performative body and imagination, They want to rediscover the poetry in life, and to enhance the abilities in transforming such sensitivity and creativity into the theatrical space. Dirks Theatre stresses on the significance of collective creativity and collaborative curiosity, sprung from the genuine concerns and sensitivities towards how human existence is constantly being constructed and destructed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he main body of work has been consisted of theatre pieces using movement and adaptations and revivals of texts as major anchoring points. In collaboration of multi-disciplinary artists, Dirk Theatre creates an authentic theatre experience which invites the audience to interrogate their imagination, body memories and own tradition. Dirks Theatre's recent projects mainly focus on researches on city lives, human stories and how a performative space could be influenced by hybrid forms of expressions and representations. At the same time, they try to create an artistic network for artists to come into collaboration. During our residency, They aim to formulate a sketch/framework for a future performance; at the same time to be inspired by the dynamics of theatre scene in South Korea, both in traditional and contemporarily art forms.

멜팅다츠

Melting Dots

공연예술프로젝트 그룹 '멜팅다츠'는 오늘날에 대두하는 주제를 재료로 삼아 형식, 장르, 작업방식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공연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멜팅인천'은 인천 거주자와 그 주변인들에게 각인된 인천의 기억, 이미지, 선입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천을 기록하는 도시 여행공연이다. 경험이란 주관적인 인식의 산물이며, 직접 경험조차도 오직 한 개인 안에서만 객관적일 뿐이다. 기록된 것만이 역사로 남듯이 도시 인천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 역시, 한 개인의 인식이 선별적으로 기록한 결과물이다. '멜팅인천'은 3대 이상 인천에서 살고 있는 시민과 타지에 사는 그들의 가족, 그리고 결혼이나 일, 학업 등의 이유로 인천에서 살게 된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답변을 수집, 조합하여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기억의 총합체 인천의 이미지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현재 기획중인 작품으로 1987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의 타임라인 안에 사회-역사적 사건을 아카이브를 하는 퍼포먼스‹From›(가제)가 있다. 한편, 운영 중인 예술-공연예술 출판사 '1도씨'를 통해 희곡, 비평, 아카이빙관련 출판물을 지속적으로 기획, 생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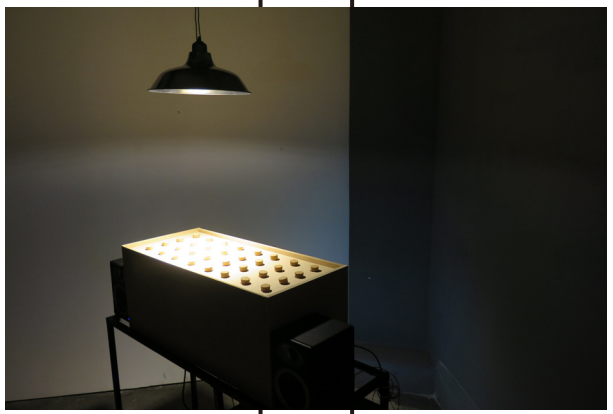
www.facebook.com/meltingdotss
meltingdots.wordpress.com

바하유람기
BACH Yu Ram Gi, Travel to BACH

공연 퍼포먼스
theatre performance
www.ioft.de/web/archiv.php?nr=619
2015

The performing arts project group, 'Melting Dots' aims to make the emerging themes today into performances by using various forms, genres and working ways. 'Melting Dots' is a city tour performance which records a new Incheon based on memory, image and prejudice about Incheon imprinted on the residents living in Incheon and people around there. An experience is the product of subjective perception, and even first-hand experience is only objective exclusively within an individual. The image and memory on the city of Incheon is only a record which an individual perception records selectively as only a thing recorded is remained as a history. They want to make the image of Incheon, that is, symplex of subjective and individual memory by collecting, mixing the answers produced through the interviews of various people, such as the citizens living in Incheon more than three generations, their families living away from their home and citizens who live in Incheon due to marriage, work, study and other reasons.
They currently plan to prepare another performance, ‹From›(working title) which archives the social-historic events in an individual timeline from 1987 to 2017. Meanwhile, they continue to plan and produce various publications related to play, criticism, archiving through the publisher specialized for fine arts-performing arts currently in place, '1°C'.

배인숙 BAE Insook



1975년 출생, 서울 거주.
배인숙은 사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미디어 장치를 사용하고, 프로그래밍과 피지컬 컴퓨팅 기술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작업에 관심이 많다. 작가는 잊혀진 사물, 일상의 소리, 직접 만들어 악기역할을 하는 장치들을 작업의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상의 소리나 잊혀진 사물들을 본인의 관점으로 색다르게 바라보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그녀의 작품은 실시간 관객과 대면하는 공연예술 방식을 전시에 대입하려고 하기에, 대부분 관객과의 반응을 주요하게 다루는 인터랙티브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입주기간에 한정된 공간의 특징들을 음향으로 표현하는 설치작업과, 일상생활이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모방한 미디어 작업을 구상중이다.

부엌 소리 생성기
Kitchen Sound Generator

가변설치. 코르크, 합판
dimensions variable. cork, plywood
32×70×50㎝
2015

Born in 1975, lives in Seoul.
BAE Insook works in the fields of performance and exhibition by using various media devices around sound. She is interested in a work using the technique of programing and physical computing naturally. The artist uses the forgotten things, sounds can be heard in normal life and her home-made devise playing the role of a musical instrument as a main ingredient of work, and she is interested in looking at the sounds of everyday and the forgotten things differently. In addition, most of her work has an interactive nature which gets a response through audience participation. That is why she intends to introduce the characteristic of performance which faces audience in real time. She is planning to come up with an installation work which is not only a performance but also an exhibition, and emphasizes characteristics of limited space acoustically. Additionally, she is also contemplating a media work imitating the system which exists in everyday life and the natural world.

서영주 SEO Youngjoo

1980년 출생, 서울 거주.
서영주는 창작하는 사람, 움직이는 배우이다. 작가는 움직이는 조각으로서 무대 연기, 신체를 이용한 움직임 탐구, 원초적 소리 등 연극 장르의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이용해 다양한 창작, 실험을 하고 있다. 현재 영화배우 및 창작극단 BJR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또 거침없이 새로운 소리와 움직임을 펼쳐보이듯 자신도 무대 위의 창작자로서 사람과 삶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관객과 교감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작가는 “삶의 과정은 모두 낙화의 반복이다. 막다른 길, 한계지점에서 뛰어내려야만 다시 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가장 연약한 소재인 종이로 인형을 만들어 배우를 대변하여 움직인다. 개인의 추락을 대신하는 인형의 추락 이후, 씨앗이 뿌리를 내려 새싹을 틔우는 단계에서의 타인과의 만남을 의미화한 참여예술공연 ‹_blossoms›은 우리 삶 곳곳에서 함께 부딪쳐온 한계가 만든 절망의 벽으로부터 새롭게 상생하는 극복의 의지를 담고 있다. 작가는 개인의 추락에 관한 이야기들이 함께 공유되고 새로이 피어나는 극복의 의미가 공존되어 이것이 다져진 인형극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촬영한다. 이를 통해 공연장 밖의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이야기를 재전달하는 작업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낡은 모두가 추락하고, 새롭게 모두가 피어나는 춤사위”를 통해 작가는 무대공연의 새로운 전달방식과 영화 영상미학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페이퍼맨의 추락
A Fall

퍼포먼스
performance
45'45"
2014

Born in 1980, lives in Seoul.
SEO Youngjoo is a creator and moving actor. The artist is conducting various experiments surrounding the ways of creating a work through various expression mode of play, such as stage play as a moving sculpture, exploration of the movement which uses a body and elemental sound. The artist is currently working as a movie actor and belongs to the Theater Company BJR. As a creator on the stage, as if the children paint freely and show a new sound and movement without reserve, the artist searches a feasible possibility of communing with audience through organizing the story about the human beings and life. “The process of life is a repetition of the falling of flowers. The life can blossom again only when we jump off at the dead end, limit point.” The artist makes the paper which is the most vulnerable material into a doll and moves it in place of actor. After the fall of a doll replacing the fall of an individual, the meeting with the others in the stage which the seeds take a root and plants push out new shoots, ‹_blossoms*› expresses a will to overcome which coexists newly from the walls of limit and despair which we face in the life. (*participatory art performance) “a dance which all the old things fall, a dance which all the new things blossom.” The artist films the process of recreating a puppet show made through sharing the stories about the falls of individuals, coexisting with the meaning of newly blooming will to overcome. Through this, the artist plans to make a work delivering our stories again to the people outside of performing place. The artist also wants to show a new way conveying a performance on the stage and various possibilities of film aesthetics.

안명호공미선

AN-KONG

안명호공미선은 5년 전 다양한 커뮤니티 베이스의 예술활동을 진행해오면서 결성된 팀이다. ‹42번 바다의 잠긴 방›은 백중사리가 되면 해수면이 높아져 바닷물에 침수되는 군산의 어느 피란민촌에서 진행된 작업이다. 안명호공미선은 이 마을에 빈집 하나를 빌려 두 달간 생활하면서, 곧 철거될 마을에서 수집한 물건들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그 안에서 전쟁과 산업화라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발견하고 전시를 통해 이를 소개했다. 2016년 9월, 개발을 위해 철거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피란민촌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인천 송림동에서 ‹황해전파사›와 ‹황해식당›을 열어 주민들에게 오래된 가전제품을 고쳐주고, 이북음식을 만들어 나누며 피란민들의 삶속에 녹아있는 이야기들을 들어 볼 계획이다. 내년에는 부산이나 옹진군에 있는 다른 피란민촌을 찾아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www.facebook.com/42bada

42번 바다에 잠긴 방
The Room Sunk in Number 42 Sea

커뮤니티 아트
community art
2015

AN-KONG was created for five years ago for community based art work activities. ‹The Room Sunk in Number 42 Sea› is a work made at a refugee camp of Gunsan, North Jeolla Province where is scheduled to be flooded by the higher sea levels at the time of high tide in Backjoong. AN-KONG leased a vacant house in this village, lives there for two months. And they recorded the stories about the objects collected in the village where is scheduled to be demolished and people living there, discovered our modern history which went through war and industrialization, and showed these into an exhibition. They opened ‹Yellow Sea Electronic Equipment Store›, ‹Yellow Sea Restaurant› in September 2016 and repaired the old electronic equipments for the residents at Songrim-dong in Incheon where is scheduled to be demolished but the trace of refugee camps remained yet. And furthermore, they plan to make the North Korean foods and share them with the residents, and listen to the stories about the life of refugees. They want to move into the other refugee camps in Pusan and Ongjin-gun.

앤드씨어터

A.N.D. theatre

앤드씨어터는 2008년 공연 형식에 대한 실험과 지속 가능한 작업으로써의 예술 활동을 위하여 창단되었다. 이들은 연극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아날로그적 감성과 새로운 상상력으로 세상과 관객의 매개자가 되고자 한다. 앤드씨어터는 주로 존재의 이유를 파헤치는 작업,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는 작업, 지속해야 할 가치를 공유하는 작업, 세상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작업들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재생과 변화, 연대와 공존을 위한 비판과 성찰을 그들 작품의 중요한 도구로 삼는다. 입주 기간에는 인천아트플랫폼이 근대 개항의 역사적인 공간이라는 특징을 살려 ‹한국근대문학극장› 시리즈와 ‹15분 연극제›를 준비 중이며, 이런 작품들을 통해 이곳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이들은 2015년부터 인천아트플랫폼에 머물며 인천 지역의 젊은 연극에 활기를 불어넣고 젊은 아티스트들과의 연대를 도모해 왔다. 올해에도 많은 예술가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이들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 협업과 융합의 창작에너지가 기대된다.

www.andtheatre.com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연극
theatre
2015

A.N.D. theatre was created for the experiment in the form of performance and for the art activities as a sustainable work in 2008. They believe that A play can make the world beautiful. and they want to be a link between the world and audience with a analog sense and new imagination. They are making the works finding the reason of the existence, exposing the hidden truth, sharing a sustainable value and criticising the irrationalities of the world. They make the criticism and reflection as the important tools for the regeneration, change, solidarity and co-existence. During the residency, They want to come up with the series, ‹the Korean Modern Literary Theater›, and make this into a place where various artists hold a performance festival through emphas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 space in the opening port era and Korean artist could exchange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through ‹15 Minutes Drama Festival›. They want to use the Incheon Art Platform as a space for experiment and challenge, and in addition, as a fusion and communication. A.N.D. theatre wants to stabilize the works in progress, and cooperate and exchange with various artists. They hope that Incheon would be full of energy with the solidarity among the young artists.

에릭 스캇 넬슨 Eric Scott NELSON

1980년 출생, 인천 거주.
에릭 스캇 넬슨은 미국 아리조나에서 태어났고 2007년부터 한국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그는 이번 리플렛에서 그의 페이지를 하얗게 비워두었다. ‹하얗게 비워진 리플렛›은 시간과 공간 특정적 작업으로 사진도 형식도 없다. 그는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가 된다고 말한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에릭 스캇 넬슨은 ‘잠을 청하기 위한 조각’(sleeper sculptures)에 관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빠르게 조립할 수 있는 가벼운 조각작업으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일시적인 쉼터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작가는 조각작업을 만들어 그 안에서 잠을 청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것이며, 인천아트플랫폼을 시작과 마지막 지점으로 삼아 인천의 여러 장소에서 이 과정을 되풀이 할 것이다.

ericscottnelson.com

하얗게 비워진 리플렛
blank white space in the promotional leaflet

빈 공간, 실제크기
printing nothing in the space, actual size
2016

Born in 1980, lives in Incheon.
Eric Scott Nelson was born in Arizona and has been based in Korea on and off since 2007. He is blank white space in the promotional leaflet. The <blank white space in the promotional leaflet> is a time and site-specific performance of no photo and the lack of printing in the space. He said that adding nothing becomes something. During the residency, he is researching and developing ‘sleeper sculptures’, light weight art sculptures that can be assembled quickly and double as a shelter, a temporary place to sleep for the night. He will construct a sculpture, sleep inside it, disassemble it the next morning, and repeat the process in different locations throughout Incheon with IAP as a starting and ending point.

월요일 사람들 Monday Humans

월요일 사람들은 한국의 안무가이자 무용가인 송주원, 독일의 재즈 음악가이자 작곡가인 피터 에발트, 한국계 독일 음악가이자 퍼포머인 신효진이 협력해 만든 프로젝트팀이다. 이들은 주로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프로젝트(city-project)들로 동시대 무용 공연을 만들고자 하며 문화, 자연, 사회적인 경계와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경계라는 주제를 다룬다. 또한 이따금 추방으로 이어지는 위반, 이주, 피난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을 본 관객들은 음악, 무용, 영상, 무대디자인의 협업을 통해 공간-신체-역사의 관계가 전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월요일 사람들은 시인 백석, 작곡가 윤이상과 같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받아 상상의 독백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현재 도시의 여러 공간, 예를 들어 인천(이주의 역사적 문화적 변화를 상징하는 도시)과 같은 도시에서 ‘이민자와 추방자’ ‘난민으로 사는 삶’을 모티프로 삼아 장소 특정적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 영상기록에 반응하는 라이브 공연을 무대 위에서 펼치며, 폭 넓은 신체적 기억의 표현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 지닌 다양한 측면과 물질성을 공유하는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한국과 독일에서 삼년간 이어지는 프로젝트로 진행할 계획이다.

www.11danceproject.com

월요일 사람들
Monday Humans

퍼포먼스
performance
30'
2016

Monday Humans is a collaborative project of the Korean choreographer and dancer Joowon Song, the German Jazz musician and composer Peter Ehwald and the Korean-German musician and performer HyoJin Shin. It aims to create a contemporary dance theatre piece as city-project, dealing with the issues of cultural, natural, social, ideological and physical borders and the overcoming of them through transgression, migration and refuge, sometimes followed by exile.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music, dance, video and stage design, the audience is going to experience a revision of the relation between space-body-history. Monday Humans gets inspiration from different artists, e.g. BaekSeok, Yun Isang become sources for the creation of visible and sounding imaginatory monologues. They want to make the shooting video documentation of the site specific performances based on the motifs of life as migrant, exile, refugee at the spaces of a city in present time(e.g. Incheon: symbolic city for migration and historical cultural changes). Live performance on stage interacting with the video documentation of the performances at different sites in the cities. Through broadening the expression of the physical memory, a proposal for how to share various aspects and diverse physicality of space and time comes forward.

강제윤 KANG Jeyoon

추자도
Chuja island
c-프린트
c-print
2015

1966년 출생, 경상남도 통영 거주.
강제윤은 시인, 에세이스트, 사진가, 섬 여행가,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자문위원이다. 저서로는 「당신에게, 섬」, 「섬택리지」, 「섬을 걷다」, 「바다의 황금시대 파시」 등 다수가 있으며 섬 사진 관련 개인전을 5회 가진바 있다.
한국에는 4500여개의 섬들이 있는데 그중 유인도는 500여개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유인도 400여개를 답사하고 글과 사진으로 기록했다. 섬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시대에 섬을 기록하는 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섬의 자연과 문화, 사람살이의 내력을 기록중이다. 입주해 있는 동안 이미 한 두 번씩은 답사했지만 인천의 유인도들을 다시 한 번 답사한 뒤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작가들도 인천의 섬으로 안내하여 섬에서 영감을 얻게 하고 창작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한다.

www.facebook.com/jeyoon.kang.7

Born in 1966, lives in Tongyeong, Gyeongsangnamdo.
He is a poet, essayist, photographer, island tourist. he is the director of corporation aggregate Island Research Institute and consultant of the Taking Care of the Island in South Jeolla Province Where We Want to Go. He wrote many books, such as 「To You, Island」 「Island Tangniji」 「Walk the island」 「the Golden Age of the Sea, Seasonal Fish Market」 and held 5 solo photo exhibitions about the island.
There are 4500 islands in Korea, and among them, the islands where people live are 500. For the last 10 years, he made the on-site surveys of the 400 islands where people live, and recorded them with writings and pictures. In the time when the record about the islands does not exist at all, he considers himself to be a chronicler recording the islands, and is recording the nature and culture of the islands and history of the people there. Although he already explored the islands where people live once or twice, but after exploring the islands where people live in Incheon once again, he plans to record the experiences with writings and photographs, and hold an exhibition. He wants to lead the residency artists in the Incheon Art Platform to the islands, make them get an inspiration from the experiences and help them create something.

김홍기 KIM Hongki

전시 기획: «사소한 조정»
Exhibition planning: «Minor Adjustments»
손혜민, 존리어톤 2인전
Sohn Hye Min-John Readon, Two Persons Exhibition
Incheon Art Platform
2011

1977년 출생, 인천 거주.
김홍기는 미술사, 철학, 미학을 공부했고 평론, 전시기획, 번역 등 동시대 미술 담론과 실천에 기여하는 여러 작업들을 진행한다. 또한 비디오아트의 시간성에 대한 박사논문을 집필 중이다. 그는 미학과 정치, 테크놀로지의 상관관계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일차적으로는 비디오를 비롯한 시청각 매체의 예술적 기능을 연구하고 있지만, 회화나 조각, 또는 사진과 건축 같은 다양한 동시대적 예술 실천 전반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있다. 질 들뢰즈, 베르나르 스티글레르,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자크 데리다 등이 개진한 프랑스 현대 미학의 논의를 주된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다분히 무질서해 보이는 동시대미술을 관통하는 새로운 개념을 모색하고 있다. 김홍기는 우선 '현대 비디오아트의 시공간적 지연'에 관한 논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일상적 시간을 멈춰 세우고 일상적 공간의 경계를 지우는 비디오아트의 미학적, 정치적 전략을 '지연'이라는 개념을 통해 규명해 보는 것이 그 논문의 목표다. 그 외에도 평론가로서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여러 작가론과 전시평을 쓸 생각이며, 기회가 닿는다면 동시대 미술의 한 단면을 선명히 드러내는 전시를 기획하고 싶다고 한다.

Born in 1977, lives in Incheon.
He studied art history, philosophy, esthetics. He proceeds various works(criticism, exhibition planning, translation) which contribute to the contemporary art discourse and practice. And he is writing his doctoral thesis about the temporality of video art. He is very interested in corelation between aesthetics, politics and technology. Although he researches primarily the artistic function of the audiovisual medium including video, he also studies about various contemporary art practice, such as painting, sculpture, photograph, architecture. His theoretical background is placed on the discussions of contemporary French aesthetics, such as Gilles Deleuze, Bernard Stiegler, Georges Didi-Huberman, Jacques Derrida, and seeks a new conception which goes through the contemporary art which looks more or less chaotic. First of all, he is going to complete the thesis about 'Delay of Time and Space in the Contemporary Video Ar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make a close inquiry into the aesthetic, political strategy of the video art which stops the daily time and erases the boundaries of the everyday space. In addition, he plans to work as a critic and write various essays on the artists and reviews on the exhibitions, and hopes to plan the exhibition which can show clearly a slice of contemporary art at the first opportunity.

나여랑

1988년 출생, 서울 거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극학을 전공한 나여랑은 한국경제, 뉴스테이지 등에 연극평론을 기고하며 비평 활동을 한다. 또한 대안공간 아트포럼리의 비평가 레지던시 '사유게르'의 입주 작가로 활동하며 미술 비평으로도 분야의 확장을 도모했다. '비평은 재미없다 비평은 어렵다 그래서 아무나 보지 않는다'에 반기를 들고 나서 비평을 대하는 태도는 비평의 탈문자화, 탈현학화를 대두시킨다. 이것은 종래의 비평이 가진 틀을 깨기 위한 불가피한 시도이다. 따라서 글이 아닌 다른 장르의 예술을 비평의 플랫폼으로 활동하고, 이를 다시 언어화하는 것, 이 과정 자체를 창작의 연장, 혹은 새로운 창작으로 보는 것이 나여랑이 표방하는 방향성이다. 책상에서 이론만 구겨 넣으며 어려운 말만 늘어놓는 비평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평을 다양한 장르의 예술로써 표현해내는 일을 할 것이다. 연극의 비평은 이미지로, 음악으로, 무용으로 출력될 것이다. 이른바 '비평 공연'이다. 비평 공연의 공연자는 누구나 비평가가 된다. 공연자들의 모임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비평가 그룹'을 결성하여 비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향후 계획이다.

NA Yeorang

참여비평: 2015 비평가 레지던시 '사유게르' 프로젝트 내 비평 «공간의 탐닉전»
Participatory review: Criticism, «Indulgence of Space» Exhibition in 2015 Critic Residency 'Thought Ger' Project

Born in 1988, lives in Seoul.
Na Yeorang majored in dramatics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makes activities to criticize while contributing the reviews on play to The Korea Economic Daily, New Stage. The artist also tried to extend her scope to art criticism while working as a residency artist in critic residency ‹Thought Ger› project organised by alternative space Artforum Rhee. Her attitude on the criticism which revolts against 'The criticism is not interesting. The criticism is difficult to understand. So not everyone is able to read and understand it' frees the criticism from literation and pedantry. This is an inevitable attempt to tear down the existing criticism. Therefore, she uses different genres of art as a platform for criticism and makes this into a language. And she regards this process as an extension of creation or new creation and this is where she want to be. The criticism which is full of all kinds of theories and hard words means death. So, she is going to express criticism as various genres of art. The criticism on play would be putout into image, music and dance. This is so called 'performance of criticism'. All the performers of 'performance of criticism' become critics. She plans to form various genres of 'critic group' based on the group of performers and come up with new paradigm of criticism.

박준상

1966년 출생, 서울 거주.
박준상은 철학을 전공했으며, 미학과 문학을 연구해왔다. 몇몇 시인, 설치미술가, 단편영화감독과 협업하거나 그들에 대한 평문들을 썼다. 지은 책들로 「빈 중심—예술과 타자에 대하여」, 「바깥에서」, 「떨림과 열림—몸 음악 언어에 대한 시론」이 있다. 그는 이론적 연구가 예술, 문학, 정치의 현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텍스트들을 써오면서 문학, 미술,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작가들과 협업해왔다. 또한 동시대 이곳에서의 삶의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글쓰기의 형식을 찾으면서, 철학과 예술과 비평이 만날 수 있는 중간 영역에 주목해왔다. 박준상은 자본주의가 극점에 이른 현시점에서 위협받고 있는 예술과 문학의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저서(「예술 문학 정치에서의 보이지 않는 것(가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작가들과의 여러 형태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

www.ssu.ac.kr/web/phil

PARK Joonsang

떨림과 열림
Vibration and Openness

지은 책
출판사: 자음과 모음
write a book
publishing company: jaeum & moeum
2015

Born in 1966, lives in Seoul.
He majored in philosophy, and has studied aesthetics and literature. He collaborated with a few poets, installation artists, short film directors, and wrote the critical essays about them. The books that he has wrote so far include 「Vacant Center—About Art and the Other」, 「Outside」, 「Vibrancy and Openness—An Essay on Body, Music, Language」.
He cooperated with the artists in various fields, such as literature, art, film while writing the texts with the question; 'How a theatrical research can be connected with the scenes of art, literature, film?' In addition, while looking for the form of writing which can directly include the experiences of life here in the same age, he has paid attention to the borderland where philosophy, art, and criticism can be met. He plans to write a book (working title: 「The Invisible in Art, Literature, Politics」) which would deal with the possibility or impossibility of art and literature under threat at this point in time when capitalism runs to an extreme. He also plans to cooperate with many artists in various forms.

채은영

CHAE Eunyoung

프로젝트 '파산의 記述', 지역연구 답사
'The description of bankruptcy', area study and field trip project
2011

1972년 출생, 서울 거주.
채은영은 통계학, 예술경영, 미술 이론을 공부했고 도시 공간에서 자본과 제도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가진 미술의 상상과 실천을 위한 기획, 연구, 강의 및 비평을 하는 인터-로컬 큐레이터로 활동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포스트프로파간다»(2013), «미적범주»(2013), «메타데이터»(2012), «만국박람회»(2012), «사운드스케이프»(2012) 등의 전시 기획과 송도신도시 삼부작 (‘유령the invisible’ ‘Other Residence’ ‘파산의 記述’) ‘DIY 포럼’ ‘다른 공간 : 다른 경제와 다른 예술’ 등의 공공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동석 전시기획상(2013)을 수상했고, 프로젝트 비아(2013)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금 수혜 및 큐레이터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최근 「도시재생과 예술/가」(2016)의 편집 및 저자이며 「Thinking Contemporary Curating」을 번역 중이다. 레지던시 활동으로 로컬 큐레이팅 방법론 관련 연구, 프로젝트, 출판과 지역성과 노동 관련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1990년대 한국 현대미술에서의 공동체 담론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 중이다.

www.slowrush.org

Born in 1972, lives in Seoul.
She studied statistics, arts management and art history. She acts as an inter-local curator who plans, studies, lectures and criticizes for imagination and practice of art which has a healthy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system in a city-space. She planed various exhibitions, such as «Knowledge Is Power: Postpropaganda»(2013), «Aesthetic Category»(2013), «Metadata»(2012), «World Exposition»(2012), «Soundscape»(2012) and designed a lot of public projects, such as the Song-do New City Trilogy(‘Ghost, the Invisible’ ‘Other Residence’ ‘The Description of Bankruptcy’), DIY Forum, ‘Different Space: Different Economy and Different Art’. She won the Lee Dong Seok Prize for Exhibition Planning(2013), and she participated in a lot of curator residency programs which receive public funding including the Project Via(2013). Recently, she wrote and edited 「Urban Regeneration and Art/ist」(2016), and is translating 「Thinking Contemporary Curating」 now. During the residency period, she will carry out a research on a curatorial methodology : how to curate the locality. This research will be accompanied by relevant projects and publication. She is also planning to make exhibitions with the subject of locality and labour. She is now writing a thesis for a doctorate on the community discourses of Korean contemporary art in the 1990s.

7th Resident Artists of Incheon Art Platform 2016

인천아트플랫폼

22314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해안동 1가)
전화. 82 (0)32 760 1000
팩스. 82 (0)32 760 1010

Incheon Art Platform

3, Jemullyang-ro 218beon-gil,
Jung-gu, Incheon, 22314,
S.Korea
Tel. 82 (0)32 760 1000
Fax. 82 (0)32 760 1010

www.inartplatform.kr

발행처
인천아트플랫폼

발행인
관장 최병국

발행일
2016년 3월

번역
성헌번역사
박재용

디자인
6699press

Publication
Incheon Art Platform

Publisher
CHOI Byung kuk,
Director of Incheon Art Platform

Publication date
March, 2016

Translation
Seongheon Translation
PARK Jaeyoung

Design
6699press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 작가와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으며 저작자와
인천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16 인천아트플랫폼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individual copyright holders and Incheon
Art Platform.

© 2016 Incheon Art Platform

IFAC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

IFAC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

www.inartplatform.kr